

‘후후한 교사, 꿈틀거리는 아이들’



가정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총일교회 가정예배부

## 설교

여러분, 혹시 아주 슬펐던 기억이 있나요? 소중한 장난감이 부서졌을 때, 반려동물이 아플 때, 혹은 사랑하는 가족이 멀리 떠났을 때처럼요. 그럴 때 마음이 너무 아프죠. 오늘 성경에도 아주 슬퍼하는 사람이 나와요. 바로 ‘나인성’에 사는 한 과부예요. 그녀는 외아들을 잃고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따라가며 위로했지만, 아무도 그 슬픔을 진짜로 해결해 줄 수는 없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길을 지나가셨어요. 예수님은 울고 있는 여인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성경은 말해요. 예수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 하시고, 무덤으로 가는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셨어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죽었던 청년이 눈을 뜨고 일어나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두가 깜짝 놀랐고,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생명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의 슬픔과 두려움, 외로움을 새 생명으로 바꿔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을, 눈물에서 기쁨을 만들어 내시는 분이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슬프거나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예수님께 기도해야 해요. “예수님, 저를 도와주세요!”라고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아 주시고,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예요!”**

## 예배 순서

사 도 신 경 ..... 다 같 이

찬 송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다 같 이

말 씬 봉 독 누가복음 7:11~17절 다 같 이

설 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예요 설 교 자

말 씬 나 눔 ..... 다 같 이

합 심 기 도 ..... 다 같 이

축 복 기 도 .....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주 기 도 문 ..... 다 같 이

★ 찬송과 축복 기도문과 말씀 나눔은 뒷면을 참조해 주세요

★ 합심기도는 가족원들의 기도제목으로 같이 기도해 주세요.

## 찬 양



## ▶ 찬양 동영상 바로가기

## 공동기도문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알게 해 주셔서 감사해요. 우리의 슬픔과 아픔 속에서도 함께하시는 예수님을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이웃의 아픔을 위로하고, 소망을 전하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말씀나눔

1. 예수님이 나인 성 과부의 아들을 보고 어떤 마음을 가지셨나요?
2. 내가 슬프거나 힘들 때, 예수님께 어떻게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요?